

■ 조선일보 초청 회원간담회

“기업이 발전해야 언론도 성장”



▲ 조선일보 초청 회원간담회 전경

한국광고주협회는 6월 15일 조선히텔 그랜드볼룸에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비롯한 편집·경영 간부진을 초청, 제62회 회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고주측에서 민병준 회장을 비롯하여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 허준 대우증권 회장,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 이상윤 농심 부회장, 추지석 효성 부회장, 이서형 금호건설 사장, 강병원 동원산업 사장, 김용규 종근당 사장, 이정국 대림산업 사장,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 등 광고주 80여명이, 조선일보 측에서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비롯하여 안병훈 부사장, 김대중 주필, 강천석 편집국장, 류근일 논설주간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광고주들과의 뜻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민병준 회장은 “최근 국민, 기업, 정부 모두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경제가 서서히 회생되고 있다”며, “이 시간을 통하여 기업과 정부, 언론이 힘을 합쳐 난국을 완전히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방상훈 사장은 “가로쓰기 편집 등 발빠른 변화를 추구하는 조선일보는 광고주들이 시장원리에 따라 원하는 광고매체와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며, 기업의 발전이 있어야 언론도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올바른 보도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 특별연설 >

이날 간담회에 특별초청 연사로 나선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의 경제동향과 향후 정책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의 경제동향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함께 향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소상히 밝혀 관심을 모았다.

강봉균 장관은 “우리 경제의 회복속도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에게 위기극복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신뢰감을 회복시켜 준데 큰 의미가 있다”며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대한 확신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구조개혁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경기회복의 건실화, 일관성있는 시장개방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안정, 구조조정 이후에 대비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장관은 “노사가 당기 순이익 범위 내에서 이익금의 일정 부분을 주주배당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할 경우 성과급 전액을 손비로 인정해 줄 수 있도록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개정, 올해 사업년도부터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았으며, 이 자소득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일률적으로 인하할 경우 고소득 계층까지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봉급생활자와 중산층, 서민층 안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추진해 온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위주의 일자리 창출을 더욱 늘려 나가고, 의료비, 보험료의 공제한도 증액, 소규모 자영업자의 창업지원 확대를 위한 신용보증기금 확충 등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장관은 “대외적으로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과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경향 및 세계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구조개혁을 마무리짓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 등이 있다”며 우리 경제를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광고주들은 정부에서 기업의 입장도 십분 고려하여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금리 인하 등 필요한 조치 등을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리/ 홍헌표